

이훈재

8-6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후이교시와 조선인 여자 정신대문제

93. 11. 7~8

도야마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측 사무국장

사와다 슈조

도야마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사무국장 사
와다라고 합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
운 성적침해를 받았다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는 사실이지만
그밖에도 수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였던것입니다.

녀자정신대로서 나어진 소녀들이 군수공장에 련행되어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사실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합니다.

소학교 6학년생의 학적부에 도야마현 《후지고시에서
작업중에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을 잘리였다》고 써여져
있는 최봉녀 그리고 리종숙도 13살되던 1944년 7
월 2일, 녀자정신대로서 경기도의 노다로무과장의 인솔
밑에 일본도야마현에 있는 군수공장인 후지고시에 련행되
여갔던것입니다.

모집요강에는 《정신대로서 일본에 가서 일하면 녀학교
졸업증을 받을수 있다》고 써여져있었던것입니다.

그렇지만 동해를 건너 7월 6일 회사에 도착하니 한
달동안의 군사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중로동과 자유를 빼앗긴 생활때문에 《집에 돌아가고싶
다》고 하면서 정신적이상인 생긴 처녀들도 있었으며 로임
은 본인에게 주지도 않았습나다.

이와 같은 여자정신대, 남자보국대에 의한 강제로동을 비롯하여 《위안부》문제는 모두가 일본의 침략에 의한 희생자들이며 국가적인 정책에 기초한 강제런행, 강제로동의 결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녀 자 정 신 대

1941년부터 전쟁수행을 위하여 일본의 군수산업에 근로정신대로서 30만의 조선인소녀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년 11월 22일 공포 칙령 995호) 제3조에는 《...제국신민으로서 14살이상 40살미만의 남자 및 14살이상 25살미만의 여자들로 한다》고 지적되어 있으며 이것은 14살이상 25살미만의 조선여성들에게도 노예적인 로동을 강요하는 《법》적근거가 명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용은 회피되고 자주적인 참가라는 표면상의 원칙에서 권유, 사기의 방법으로 여성들에 대한 근로동원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대량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여자정신 근로령》(1944년 8월 23일, 공포 칙령 519호)에 따라 강제가입처치사항이 제시되고 그후부터 문자그대로 강제적인 략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효고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이 최근에 출판한 책에 의하면 남조선의 가네보서울공장에는 약 4천명의 여자 정신대가 련행되어있었다.

이 공장에서 일한 고노 야스스께 (66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조선인소녀들은 12살부터 18살이었다.

조선인들의 숙소는 한심하였고 식사도 일본인들과 달랐다. 12시간로동으로 하여 지친 그 여성들이 즐기라고 하면 채찍으로 후려갈겼다.

등뒤에서 채찍에 얻어맞은 소녀들의 아이고라는 비명이 매일처럼 들렸다.

공장안에는 일본군인들과 헌병들이 있었는데 비범적인 형벌도 보여주곤 했다. 이와 같은 중로동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여 여위고 흘쭉해진 소녀들의 모습은 햇빛을 쬌이지도 못하여 마치 흰초갈았는데 70%에 가까운 소녀들이 결핵에 걸린것 같았다.》고 말하였습니다.

(1992년 일본 효고현의 자택에서 조사단수집)

여자정신대가 도야마현으로 련행되게 된

배 경

도야마현 후지고시에 여자정신대로 련행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도야마현에서는 1920년대부터 구로베강, 쇼강, 진쥬강 등에서 전원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척되었고 전력은 풍부하였으므로 도야마현 경찰력사기록에 의하면 1934년에 공장이 500개, 종업원 2만여명으로서 전국 18위의 공업현이었던 도야마가 만주국의 탄생에 의하여 일본, 만주, 지나,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주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37년에는 14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서부터는 공중폭격권박이라는 사실도 있어 군수공장들이 증가됨으로써 1942년에는 전국 10위, 그후 현실적으로 공습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미쓰비시항공 등 많은 유명한 공장들이 현안에 소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입이 격증되었으며 1945년 패전시에는 군수공장 약 1천개, 종업원 12만을 헤아려 전국적으로 6번째 군수공장현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속에서 후지교시 《회사력사》에는 1945년 5월말 수자로서 종업원 36,253명 그중 조선에서 온 노동자가 남자보국대원 535명, 여자근로정신대원 1,089명이라고 씌여져있습니다.

군수공장 후지교시에 대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대두와 성쇠를 함께 한 후지교시는

1928년에 창설되어 1945년에는 총수 36,253명
을 가진 조선동해방면에서 가장 큰 군수공장으로 되어
《동양의 후지고시》로 자랑떨치고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1934년에는 해군성 지정공장으로,
1938년에는 육해군공동관리공장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도야
마정강공장의 건설조업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신규공장들을
건설해나갔습니다.

군수공장동원법(1938년), 항공기 및 공작기계 제조
사업법, 국가총동원법령, 1940년에 조직된 대일본산업보국
회에 의하여 립전태세가 취해져 1941년에 구테해군공장
으로부터 고사포부속품의 주문을 받았고 1942년에는 도
요가와해군공장으로부터 기종부속품제작명령을 받는 등 항공
기, 선박, 총포, 직접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1944년
에는 군수회사법의 제1차 지정회사로서 명실공 군수회사로
전환되어갔던것입니다.

194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공습이

시각되자 각지 군수공장들이 폭격목표로 되고 비 29 폭격기의 대도시에 대한 무차별폭격이 지방도시들에도 미치게 되었으므로 각지에서 공장소 개가 시작되었는데 후지코시는 1945년초 군수성과 조선총독부로부터 공구공장과 제강공장을 조선에 이전시킬 명령을 받았다.

이 부럽에는 제해권, 제공권을 완전히 미군에 빼앗겨 조선의 군수공업에 대줄 공구류도 현지에서 자급해야 하였으므로 사리원에 공구 및 베어링공장, 력포에 제강공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사리원에 있는 15만평의 부지에 조선공장을 만들고 유희건물을 리용하여 조업할수 있도록 6월부터 7월에 걸쳐 사리원으로 본사공장에서 종업원과 각종기계 564대, 공구용강철 500톤을 6번에 걸쳐 보냈다.

제 1 편부터 제 3 편에 승선한 종업원 574명은 7월 상순에 구사히 사리원에 도착하였는데 제 4 편부터 제 6 편까지의 배는 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됨으로써 기계 360대 등을 잃고 공장은 가동하지 못한채 패전을 맞이하였다.

한편 력포제강공장에는 고쿠라공장의 제강설비를 이동시키기로 하였으나 규슈군수관리부의 반대로 중지되었다고

한다.

후지코시가 조선 공장에 보낸 작업인원은 모처럼 조선에서 1943년, 1944년에 정신대로 끌려온 여자작업인원 420명이 기본이었다고 후지코시의 회사력사에는 쓰여져 있다.

도야마현의 정신대에 대하여

도야마현 경찰력사에 의하면 현안의 인적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1943년경부터 조선에서 청년보국대와 여자정신대가 끌려온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1944년 5월 2일 필승정신의 구호를 든 후지에쓰의 사원모집광고와 5월 9일에 제1차 조선여자정신대가 경상북도 대구에서 〇〇명 입사, 6월 8일에 제2차로 경상남도 진주에서 〇〇명 입사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6월 25일 기사에는 《공장설비는 일본에서 첫째》, 여자정신대원으로서 안심하고 가라고 한 조선총독부의 가베히라민생부장의

담화를 실었다.

리종숙 등의 경우에는 6월 27일에 《선발》회가
진행되고 7월 2일에 환송회가 진행되어 경기도지사의
격려를 받은 다음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조선신사를
참배하고 부산에 기차로 가서 6일에 후지교시에 도착하
여 입소식을 하였다고 7월 8일 신문에 실리는 등 일
본의 군수공장 후지교시를 크게 소개하였다.

후지교시의 요원계가 총복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모
집한 사람들의 수는 1945년 5월까지 남자보국대
535명, 여자근로정신대 1,089명으로 달하였다.

도야마현의 경찰력사는 현안의 여자근로정신대가
2,800명에 달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근거로 되는 자료
가 없기때문에 확인할 방도가 없는것이 현실정이다.

후지교시에서 도망갔으나 위안부를 강요당했다고 유엔
에서 증언한 강덕경의 경우는 6월 8일의 진주조였다.

미쯔비시 제 11 항공기 제작소에 대하여

미쯔비시항공기 제작소는 1944년 12월 7일의 지진 척도 8이라는 동남해대 지진, 그에 련이어 있는 비 29의 집중적 전략 폭격에 의해 나고야 지구는 피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나고야에 있던 미쯔비시항공기 제작소는 군의 명령으로 도야마에 소개되어 구레하방적공장을 넘겨받아 45년 1월부터 미쯔비시 제 11 항공기 제작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공중 폭격이 두려워 제가 사는 거리에 지하공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였고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하여 2,000 명의 조선사람들을 동원하였다고 미국 전략 폭격 조사단 보고서에 씌여 있습니다. 지하공장 건설공사중에 2명의 조선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가까운곳에 있는 절간의 과거기록장에 기록되어있다.

또한 미쯔비시가 나고야에서 공장을 소개해갈 때 조선에서 온 녀자근로정신대원(소녀)들이 내가 살던 옆 거리인 후꾸노에 137명, 다이돈에 135명 왔으며 남자보국대원 377명이 다이돈에 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그중의 한사람 김테령은 남조선 제주도에 살고있는데
여러번 나고야와 도야만에 와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응하였다.

금년 8월에 있는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에는 《노예
류사행위》라는 정의가 있었는데 조선인 여자정신대도 남성
들의 강제로동과 함께 바로 《노예류사행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문제, 강제로동과 함께 여자정신대에
관한 진상규명을 앞으로도 폭넓게 추진시키려고 합니다.